



3면

"이대정원, 10년간 15~25% 증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음 1월 18일) 제345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김용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 소장, 정현을 익산시청,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 '탄력'

전북자치도, KIST 유럽연구소·전북대·원광대·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약 체결
글로벌 인재 양성·바이오 선진기술 교류 등 협력... 스타트업 유립 진출 등도 기대
익산시·하림 등과도 공동발전 의기투합...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상호 지원 추진 등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에 뜻을 함께 하는 기관·기업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비롯해 인재양성, 관련사업 발굴, 지원사업 추진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선진기술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는 지난 1966년 2월에 설립돼 독일 자르

브뤼켄(자를란트주의 수도)의 위치해 있으며 유럽연합 강점분야인 에너지·환경·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연구 현지 수행, 유럽연합 및 국내 연구자 상호 연계를 통한 전략기술 연구 개발, 전문 인력 교류 및 연구인력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 소재 정부출연연구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추진 △전북자치도-KIST유럽연구소 소재 대학 연계 방안 및 글로벌 인재양성 △전북자치도-KIST유럽연구소 바이오분야 선진기술교류 방안 △연구개발(R&D)분야 국제 가이드라인 등 재 지적재산권(IP) 확보 등을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강화는 물론 향후 스타트업 기업들의 유립 진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또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주)하

림,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8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협약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함께 협력과 공동발전을 꾀하고 의기투합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후속 지원사업 추진, △바이오 분야 동향,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 교환 등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산업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에서 키운 바이오산업과 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는 등 전북형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
3곳 평일·주말 근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 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3개소에 대해 평일, 주말 근무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지방의료원은 3곳으로 군산·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해당된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 시설은 24시간 가동하고, 군산·남원 의료원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까지, 주말은 24일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타 의료원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것을 감안해 평일, 토·일요일 까지 모두 진료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진료시간 확대는 위기 단계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진료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지방의료원 임직원은 "정해져 있는 공공병원별 의료진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중증 환자 등은 최대한 공공병원에서 수용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환자 곁에는 여러분 손길 절실"

김관영 도지사, 의료계 집단 행동 관련 '현장 복귀' 호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현장 복귀'를 당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지역 사회와 지역 의사단체에 전달했다.
이 호소문은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지역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호소문에서 "지금 우리는 지역과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위해 더욱 든든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산고의 과정을 치르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환자 곁에는 의료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도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밤낮으로 환자들을

지켜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의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에 대한 신뢰 역시 변함없다"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중·비응급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여러분의 의료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부디 여러분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도민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보육 부담 최소화·질은 극대화

전북자치도, '2024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육의 세 축인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에 한 걸음 더 힘을 실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는 도내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어린이집 영아(0~2세)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5% 인상, 반정원 50% 이상 100%미만인 경우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못하는 50%미만 반은 도비 월 30만원 지원해 영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한다.
영유아 감소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어려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미지급 인건비를 지원하

고 유아반 등 30%를 지원받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한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63개 반(독립25, 통합38) 운영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균형 잡힌 식단 및 양질의 간식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하여 결정했다.
그 결과, 차액보육료는 지난해보다 3세는 1만3,000원, 4~5세는 1만2,000원 인상되었으며, 3~5세 유아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을 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3~5세 유아는 부모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